# 교육연합신문

2010년 3월 3일(수) 제 38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32-433-1633

# 고교재입학 학년 결정 학교외 학습경험도 인정

## 국무회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청와대〉

앞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이가 고등학교 중간과정으로 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습경험에 대한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교 재입학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심의와 평가결과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의 능력있는 인사가 고교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 계약직 공무원에 준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다.

지방자치교육법 개정 공포안은 올 6월 실시되는 교육의원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금지와 후보자의 정당 표방금지를 규정했다.

또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에도 정치자금법 규정을 준용토록 해 음성적인 선거비용 모금을 제한하고, 선출된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나 직원 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이 교육의원과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사립대 통폐합 기준을 올해 부터 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준을 마련하고, 통폐합시 교육중심과 연구중심으로 구분해 적용하던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을 대학으로 단일화 했다. 이와 함께 사립대의 입학정원 감축 기준과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로 변경했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중 개방형 직위를 1개에서 3개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북한이탈 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인력과 건강관리 인력 등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고(故) 이영덕 전(前)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추서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 교육-게임 접목 'G러닝 학교' 5곳 신규 선정

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인 G러닝 대상으로 서울 논현초등학교 등 5개 학교가 새로 선정됐다.

연구학교는 총 8개로 확대,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인 G러닝 학습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G러닝 연구학교' 사업의 2010년 신규 5개교를 22일 발표했다.

게임형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인 G러닝은 2009년 서울 및 경기도에서 서울 발산초, 우신초, 경기 동두천 중앙고 3곳의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대구광역시와 강원도까지 총 4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신규 G러닝 연구학교는 서울 논현초, 흑석초, 대구 동신초, 경기도 서삼초, 강원도 노암초가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2010년에는 2009년 지정 연구학교 3개교와 신규 지정 5개교 등 모두 8곳의 G러닝 연구학교가 운영된다.

기존에 지정된 3개교는 3월부터는 2차연도 G러닝 수업이 진행되며, 올해 신규 지정된 연구학교는 2학기에 G러닝 수업을 시작해 2011년 1학기까지 연구수업을 운영한다.

강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시 학교장 징계

## 교과부, 시·도교육청 합동 학교현장 '실태점검반' 가동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 교원 성과 상여금을 각 학교에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균등분배하면 법령에 따라 학교장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초 발표한 올해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홈페이지에 '대응지침'을 올려 성과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는 교원 성과급과 관련, '균등분배·순환등급으로 뒤집어 봅시다'라는 선전자료를, 각 지부는 '2010 성과상여금 대응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료에는 시·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교사들의 결의를 통해 균등분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며, 일부 전교조 지부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도 소개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유포한 행동전략은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수업, 생활지도 등에 여념이 없는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 및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지침"이라며, "오히려 교직단체가 교원성과급에 대해 국민과 교원간의 괴리와 갈등을 조장시키는 행위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아울러 전교조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경고' 하는 공문을 통보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학교현장 '실태점검반'을 가동해 균등분배 사전 결의 등 불법 운영이 드러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9일 올해 교사의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을 50~70%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송경준 기자 skj@eduyonhap.com

**윤은혜와 시각장애 아동들** 탤런트 윤은혜가 시각장애아동과 화보촬영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 길에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엘본'이 지난 2월 25일 론칭 행사를 개최하면서 탤런트 '윤은혜'와 시각장애아동 미술교육단체 '우리들의 눈'에 속한 아동들이 함께 화보촬영을 했다. 캔버스 백에 시각장애 아동들과 함께한 그림작업은 '내면의 눈으로 그리는 희망, 그리고 감동'을 담아내는 화보 촬영으로 미술이 주는 희망과 꿈을 보여주어 잔잔한 감동을 그려냈다.

##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절반 이상 교체

### 강남3구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배제…인사담당자 2/3이상 교체

잇따른 교육계 비리와 최근 불거진 자율고 편법 입학 사건 등으로 대규모의 쇄신인사가 예상돼 왔던 서울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김경회)의 교원·교육전문직에 대한 3월 정기인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관련명단 10면〉

시 교육청은 2월 26일 소속 장학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예상했던 대로 대규모의 쇄신인사가 이루어졌다.

시교육청은 이번 정기인사에 대해 능력과 원칙, 도덕성을 바탕으로 교육비리 척결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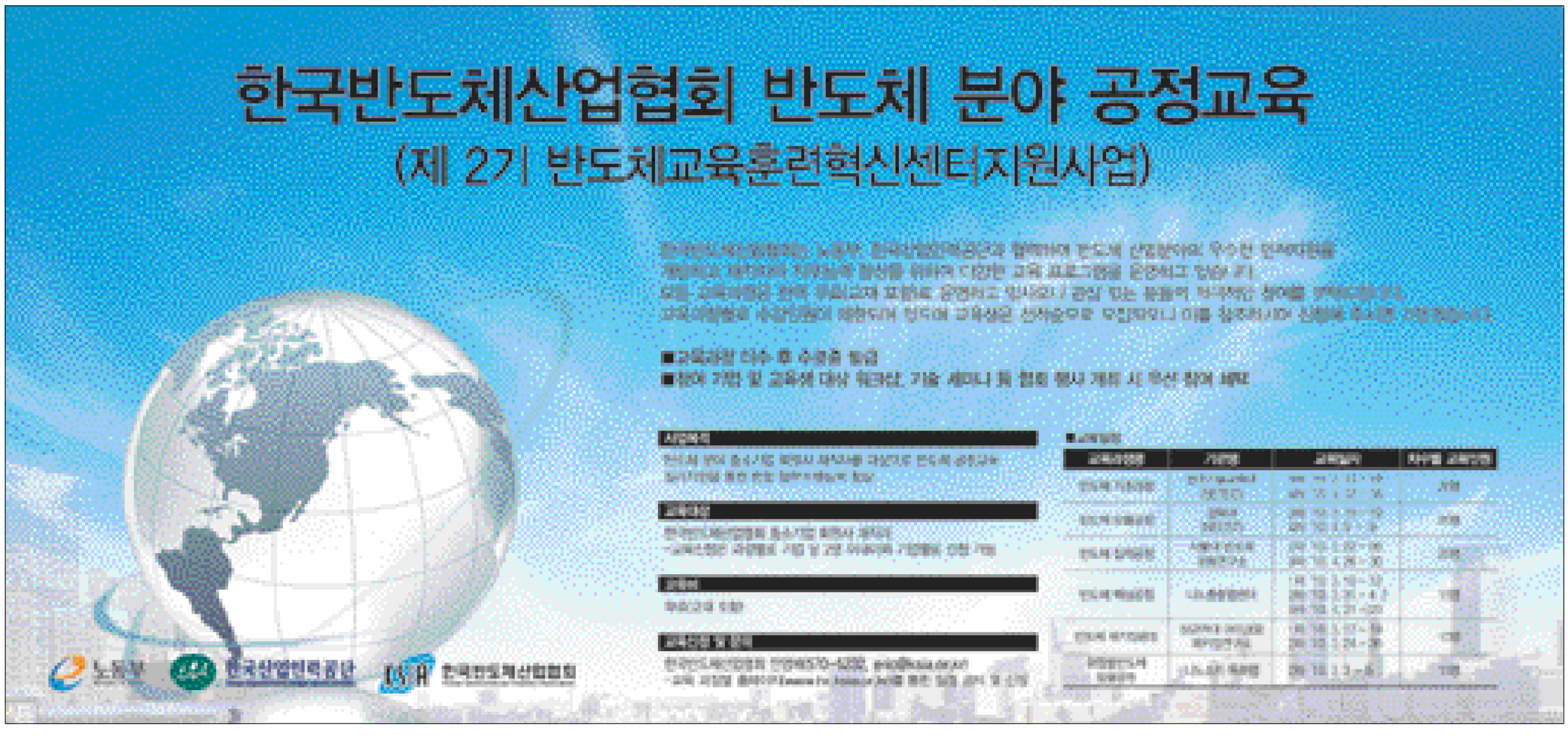
이번 정기인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장학관 이상 주요 보직자 9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명을 교체했다(교체율 56.8%). 지역교육장 11명 중 5명, 학무국장 10명 중 7명, 직속 기관장 5명 중 3명, 직속기관 부장 12명 중 6명, 본청 국·과장 10명 중 5명, 본청 장학관 25명 중 6명, 지역교육청 과장 22명 중 15명 등이 이번 인사에 포함됐다.

또 인사담당자의 2/3이상을 교체하고 지역교육청 초, 중등교육과장도 큰 폭으로 바꿨다.

시교육청은 강남·서초·송파 등 전통적 선호지역인 '강남 3구' 지역 교장·교감에는 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을 배제하고 일선학교 교장, 교감을 배치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과학전시관장, 서울 남부교육청 교육장, 서울 중부교육청 교육장 등 4명의 기관장과 서울 대도초, 신용산초, 경기고, 서울고 등 '선호학교' 교장에도 '새얼굴'이 들어섰다.

학교장의 학교경영능력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서울 개포초 홍순길 교장을 성북교육청 교육장에 전격 발탁했으며 대왕중학교 이옥란 교장을 강동교육청 학무국장에 임명했다.

또 서울 공진초 조영옥 교장을 신목초 교장으로, 용마중 조용간 교장을 성동글로벌경영고 교장으로, 김종근 여의도중 교장을 양재고 교장으로 임명하는 등 학교경영능력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인 현직 교장들을 우대했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